



##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 한농연 국회서 기자회견 박홍수 의원 “최선” 다짐

17대 국회가 지난 7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서정의 한농연 회장을 비롯한 중앙임원들과 박홍수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국회가 상생의 정치를 통해 당면한 농정현안을 농민들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농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과 농업회생을 바라는 400만 농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업고 상생의 정치를 표방한 17대 국회가 개원했다”며 “각종 농정현안과 농업관련 법안을 현장농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299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정파의 차이를 넘어 합심하고 지혜와 역량을 쏟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농연과 400만 농민들은 국회의원 299명 개개인의 의정활동과 각 정당들의 정책 활동을 부단히 평가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급식법개정과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법제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농정현안을 10대 요구사항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회장은 “10대 요구안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여건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발전의 주춧돌인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위해 정부와 17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농민요구에 대해 박홍수 열린우리당 의원은 “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정책라인의 협조를 구해서 농업계가 갖고 있는 문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이 주장한 사안들을 검토해서 이 나라 농업과 농촌, 농민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홍수 의원은 “농업관련 53개 법률의 모범이 되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 농어업특위 「쌀·DDA 협상협의회」제2차 회의 열려 쌀 산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는 6월 14일 김충실의장(경북대 교수) 주재로 쌀·DDA협상 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탐색적 성격의 1차 협상에 이어 2차 협상에서는 시장접근물량 증량 수준, 수입쌀 시중 판매문제, 국영무역방식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상 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국의 입장에서 상대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득시킬 필요가 있으며, 쌀 협상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쌀 산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내대책과 관련하여 김홍기 한농연 수석부회장은 “국영무역 및 쌀 식용공급 제한 유지, 수확기 쌀 값 하락에 따른 소득정책, DDA협상이 끝날 때까지 추곡수매제 유지, 공공비축제 조기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정부 협상팀이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한편, 국내대책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 농어업특위 제1분과 「직불제 확대방안」관련 제1차 정책협의회 열려 소득안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는 6월 11일 직불제도 관련 제1차 정책협의회(의장 충남대 김철호 교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송수 박사는 “직접지불의 기본방향으로 1)농가의 소득(소득 재분배)과 다원적 기능(시장실패)을 직접 다루는 목표 중심으로 설계한다. 2)직접지불이 경쟁력, 농지관리, 환경, 농촌경제 등에 기여하도록 한다. 3)직접지불이 다른 보조 조치들과 결합하거나 중복되지 않고 보완효과를 나타내도록 종합적인 효과를 감안한다. 4)쌀·DDA 협상 등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품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WTO 협정에서 주어진 감축대상보조와 허용보조의 틀 안에서 관리한다. 5)수혜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

해 사전에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손재범 정책실장은 “소득안정계정 등 새로운 직불제 도입에 따른 농가등록제 도입 문제, 소득안정직불의 소득목표 설정기준, 재해보험, 품목중심의 쌀 소득 보전직불과 농가중심의 소득안정계정 중복지원 문제, 도시 빈민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산하연합회 소식

### 이경해열사 기념사업회, 추모기금 마련위해 일일찻집 열어

한농연전북도연합회(회장 임선택)와 한농연전주시연합회(회장 정주성)는 공동주관으로 11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이경해 열사 추모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이경해 열사의 숭고한 애농, 애국 정신을 추모하고 그 뜻을 모아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농연중앙회장 출신인 박홍수 국회의원을 비롯 한농연 전·현직 임원들과 한계수 전북도 정부부지사, 김병곤 전북도의회의장, 김홍국 (주)하림 대표이사, 전북농민단체장 등과 지역농민 200여명이 참석,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이 사업에 동참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성역화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고인이 안장된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현지 4만8000여평을 울 안으로 매입, 농민운동을 위한 낱골묘와 농업연수원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 한농연충북도연합회-전직회장 초청 간담회

한농연충북도연합회(회장 송인범)는 14일 이성용 도연합회 초대회장을 비롯한 전직회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인범 회장은 “전직회장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어려운 농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로 삼고 싶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전직회장들은 “협동조합개혁 등 여러사안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조그마한 힘이나마 협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 한농연해남군연합회, 희귀성 질환 투병 회원자녀 돕기 나서

한농연해남군연합회(회장 이승문)가 ‘소아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희귀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자녀돕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각계의 따뜻한 온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해남군 문내면에 살고 있는 김관용(44) 회원의 아들 준영(13)군은 지난 3월 살이 빠지고 다리가 아파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어 병원을 찾은 결과 희귀병인 소아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투병중이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승문 해남군연합회장은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연합회 차원에서 2000만원을 1차모금 목표액으로 정하고 모금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각계각층 뜻 있는 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후원 농협 665-12-158905 박형철(해남군연합회 사무국장)



## 그 밖의 농업계 소식

---

###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및 교육부 항의 방문

교육인적부의 학교급식법 개정 움직임(5월 28일자 1면 보도)과 관련,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급식법 졸속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졌다.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는 17대 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할 ‘학교급식법’ 정부 입법 과정에서 농민·시민단체의 의견은 무시한채, 일선 학교장에게 3일 내에 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졸속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이날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는 그동안 농업계 및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학교 직영 △

우리 농산물 사용 △무상 급식 등 학교급식 개선의 3대 원칙이 빠져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한 교육부를 규탄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교육부 장관 면담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한여농 '쌀사랑 국토순례' 돌입



지난 6월 1일 한여농이 전남 광양시청 앞 광장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여성농업인 국토순례단' 발대식을 갖고 24일 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전남 광양을 출발, 국토 순례에 나선 이들은 전남 장성을 지나 전북과 경북, 충북, 충남, 경기를 거쳐 오는 24일 정부 과천청사 앞까지 650km의 국토순례 대장정을 하면서 우리쌀을 홍보한다.

하루 20여km를 강행군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국토순례단의 활동에 소비자들은 물론 남성농업인들도 갈채를 보내고 있다. 순례단의 행보에 각 지역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고 있어 성황리에 진행 중이며 벌써 2만여명의 시민들이 우리쌀 사랑 엽서보내기·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여농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 농민연대 '농협개혁투쟁' 선포

농민연대는 농협개혁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3년 이내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촉구하는 등 다시한번 농협개혁운동의 불을 지폈다.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정재돈)는 지난 18일 과천청사 앞에서 '농협 개혁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민연대는 협동조합개혁 결의문을 통해 "농협 신·경분리 문제를 명확한 대책 없이 농협에서 판

단을 맡김으로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농민단체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농협개혁위원회를 농민단체-농협-농림부로 재구성해 향후 농협법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국농민연대의 요구사항은 △중앙회 신경분리 3년 내 실시 및 시·군지부 폐지 △도지역본부장 선출 및 독자적 사업·예산 권한 확보 등이 주요내용이다.

한편 농림부는 농협법개정은 6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농협개혁과제는 농협개혁위원회에 연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토록 주문할 계획이다. **한동연**



## “월간한농연”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

본 설문은 한농연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한농연」의 내용 및 편집 개선을 위한 조사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와 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연합회의 발전과 농업경영인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각 항목에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문서(뒷면)를 작성하신 후 절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중앙연합회 FAX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1번지 한농연회관 2층  
 전화 (02)3401-6543 FAX (02)3401-6549  
 E-mail : kwak121@chol.com